

문화자원 AR·VR콘텐츠화 더디네

제주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따라 추진 2021년까지 콘텐츠 도입 관광지 100곳 확대 목표 현재 15개 적용... 도 "수정 검토해 현실적 추진"

제주 문화·관광자원의 증가·가상현실(AR·VR) 콘텐츠화 프로젝트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지표 수정을 검토 중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AR·VR 콘텐츠 도입 관광지 총 100개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0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40개소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재 14개 업체·15개 프로그램 적용에 그치고 있다. 추가로 1개 업체에서 2개의 콘텐츠가

개발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목표 지표 설정이 현실성 없다고 판단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난제인데다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단기간 내 콘텐츠화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 관계자는 "2년에 걸쳐 30곳도 안되는데 1년에 30~40곳 목표 설정은 과다 설정된 부분이 있다"며 "3차 종합계획 수립시 수정 검토를 요구해 현실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지원사업(3억9600만원), 제주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지원사업(1억8000만원), 제주신화 IP(지식재산권) 구축사업(1억5000만원), 제주 으뜸활용 문화관광콘텐츠 개발(2억),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사업(9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오는 12월까지 제주 설화 등 도내 지역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앞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R·VR 콘텐츠 도입 관광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도내 박물관협회와 관광협회 회원사, 유류공간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막바지 더위 속 적양배추 파종 '구슬땀' 22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막바지 무더위 속에 적양배추 파종을 하고 있다.

남원읍 '람사르 습지도시' 향해 잔걸음

6월 최종 후보지 선정된 후 지역관리위원회 확대 재구성 습지 모니터링·교육 등 지속

물영아리오름 습지를 보유한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난 6월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2021년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부 공모에서 남원읍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뽑힌 후 2016년부터 남원·수마리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지역관리위원회를 확대해 남원읍 17개 마을 이장과 물영아리오름 인근 주민, 습지전문가, 환경관련 시민단체, 공무원 등 40여명으로 새로 꾸렸다.

주민 중심의 관리위원회는 습지 보전·관리분과, 가치인식 증진분과, 사업운영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습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의 보전·관리에서부터 습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정기적으로 물영아리오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탐방객 대상 습지 해설, 주말마다 주민 환경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전주물꼬리풀 자생지 복원행사도 남원읍 관내에서 열렸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청소년 대상 습지 캠프, 빛 공해 관리를 위한 주민 간담회와 습지 창출을 위한 후보지 조사, 습지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등과

친환경 토지 이용을 위한 간담회, 물영아리 문화제, 습지식물을 관찰해 세밀화를 그리는 나만의 식물도감 만들기 등을 통해 습지의 가치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환경부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천서를 보내 영문번역 등으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환경부가 오는 10월 람사르협약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남원읍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게 되면 지역 농산물 등에 친환경로고인 '람사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어 경쟁력 확보와 국·비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며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습지 생태계 모니터링에서부터 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대학전공 탐색하기 운영 연세대 학생들 교육 기부

서귀포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 '2019 대학전공 탐색하기'를 운영했다.

대학전공 탐색하기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서귀포시 지역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대학 전공을 소개하고 전공 선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연세대학교 전공알리미 소속 대학생 30명이 교육 기부로 참여해 지역내 5개 고교 1400여명을 대상으로 28개 학



'2019 대학전공 탐색하기'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전공알리미 소속 대학생들. 사진=서귀포시 제공

과에 대한 상세 소개와 세부 전공과목,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상담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간호학, 체육교육학, 정치외교학 등 6개 학과를 추

가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로설계를 도와준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태윤기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기업도 촉각

서귀포시 기초조사 결과 1059명에 44억여원 예상 74개 기업 감축계획 제출

제주에서도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가운데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감축활동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부담금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

서귀포시는 시 지역의 교통유발부

담금 기초조사 결과 1059명(633동)에 4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은 총 8곳으로, 대형 호텔 등 숙박시설, 회의시설, 유통매장 등이다.

이달 12일까지 접수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제출 기업은 모두 74개 기업이다.

시는 이들 기업에서 주차·승용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9가지 교통량 감축활동을 실천할 경우 부담금의 20~30%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1일 감축활동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앞으로 1년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이면서 예상되는 점과 기업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건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공포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업기술원 비정규직지회 "부당하고 철회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도농업기술원비정규직지회는 20일 "제주도정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농업기술원 정문 앞에서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해

고된 이들은 길게는 10년이 넘게 농업기술원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기간제 계약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도 농업기술원은 연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되도록 품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대 산업협력단, 농촌진흥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유도하는 등 쪼개기 계약이 자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어린이 목공 '나무야 놀자' 24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은 오는 24일 어린이 목공체험프로그램 '나무야 놀자'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어린이가 경우 우드스피커 만들기, 5~7세 유아의 경우 목재 동물 장난감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760-3484-7).

이태윤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양배추 브로컬리 무양파 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 양배추 브로컬리 양파 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